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현황과 교사의 놀이인식*

Free Play Activities in the Curricula of Childcare Center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Play

푸른보육경영
연구원 임 효 신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나 종 혜

Puruni Childcare Consortium
Research Fellow : Hyoshin R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Professor : Jong Hay Rh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free play activities in the curricula of childcare centers in Daejeon area. 29 teachers from 21 day care centers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to obtain an understanding of teachers perceptions and conflicting views about play activity in the context of different day care curricula. The data were analysed qualitatively, using categorization and key word classification, frequency analyses and chi-squared tes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play-oriented curricula included sufficient play time and planned play activities in terms of the children's development. Children's freedom in play, optimum intercession by teachers, and interrelating activities between activity areas were included. In mixed curricula, children's freedoms were limited in many cases, and interrelating play between activity areas was hardly found. Formal lesson-oriented curricula resulted unplanned play activities and teachers' passive intercession of play. (2) Most teachers believed that play activities were more important to a child's development than formal lessons.

주제어(Key Words) : 자유놀이(free play), 놀이인식(perception of play)

Corresponding Author : Jong Hay Rha,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133 Ojung-dong, Daeduck-gu, Daejeon, 306-791, Korea Tel: +82-42-629-7893 Fax: +82-42-629-7437 E-mail: Jhrha@hnu.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한남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서론

취업모의 증가와 사회적, 발달적 경험을 위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990년 48,000명에서 2008년 1,091,287명으로 늘어났다(보육통계, 2008). 출산율 저하현상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빠른 증가이며 보육시설이 취학 전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는 곧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 향상이라는 과제를 남긴다. 보육기관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1%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들고 있다(통계청, 2005).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육시설의 질은 집단 보육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 유아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변인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 크기, 교사의 교육수준, 교사 훈련과 같은 구조적 변인과, 아동에게 제공되는 활동과 교육경험, 교사-아동 상호작용 등의 과정적 변인 등이 있다(송혜린, 2004). 이 중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초로 보육과정을 구성하는가'와 구성된 보육과정 안에서 '교사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보육과정이 아동의 발달에 근거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고찰은 아동에게 있어 놀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데서 시작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놀이가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을 반영하고 강화한다는 결과가 나타나며 따라 놀이가 영유아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났다(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실제로 보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연구자들은 교육의 도구로서 놀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신은수, 1990). 특히 영유아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머물게 되는 보육시설에서는 놀이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을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서도 놀이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신유림 외, 2007).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루일과 중 아동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놀이가 가장 활발한 시간은 실내, 실외 자유놀이 시간이다. Cheng(2000)의 정의에서 자유놀이는 주도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놀이로서 아동은 자유롭게 놀이재료와 놀이상대, 놀이 장소를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육현장의 현실은 타 기관과의 경쟁 분위기 속에서 학습과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보육시설의 편익도 도모하려고 학습지 교육이나 특별활동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정화, 정선아, 이명조, 2003). 또한 자유

선택활동 놀이 시간이 줄어들고 통합적 교육과는 반대되는 수업식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자유놀이 시간이 교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되거나 아무 계획 없이 방임, 방관놀이의 시간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현장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서민희, 안선희, 2001; 이기숙, 2001; 이정환, 1993). 따라서 보육현장에서 자유놀이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아 볼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자유놀이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아동의 자유선택, 놀이 지속 시간, 자유선택을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 교사의 놀이계획과 놀이개입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준비하고 운영하며 실행하는 실체는 보육교사이므로 유아들의 자유놀이에서 교사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적극적인 놀이참여를 유도하고 아동의 놀이를 정교화 하며 놀이 행동을 교육적으로 이끄는 교사의 역할은 자유놀이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반면(신은수, 김명순, 신동주, 이종희, 최석란, 2002) 부적절한 교사의 놀이개입은 유아의 놀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교사 주도적 활동이 되어버려서 놀이의 본질을 잃게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사의 놀이개입이란 '반응적인 상호작용과 휘방하는 상호작용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Johnson et al., 1999).

따라서 보육시설의 하루일과를 진행하는 교사의 놀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인식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자유놀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사의 놀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설문지를 통한 자기평가 방식을 취하여(김소양, 1989; 김현숙, 1982; 김희정, 1998; 박은아, 2003; 서민희, 안선희, 2001; 엄정애, 2004)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진솔한 견해나 취약점, 고충, 바람 등을 끄집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King은 교사가 가진 '교육에 대한 신념'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나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반영되어 나타나며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면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연구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이은화, 배소영, 조부경, 2000,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교사 대상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하루일과 중 자유놀이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교사가 놀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현장에서 자유놀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사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육과정의 질적인 놀이 운영을 위해 강화하거나 개선, 보완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보육시설에서 자유놀이 운영에 따라 보육과정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2. 보육과정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놀이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소재 보육시설 중 설립 유형(국공립, 직장, 법인, 민간)간 균형을 고려하여 임의 선정된 21개 보육시설의 교사들 중 인터뷰 협조를 수락한 교사 29명이다. 가정보육시설은 20인 미만, 영·유아 혼합연령 운영이 포함되어 교사의 보육여건이 다를 수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대상 교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은 만 21세부터 만 38세까지로 평균연령 27.2세였다. 학력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대학교 졸업 12명, 대학원 졸업 5명)이 반 이상이였다. 교사 경력은 3년 미만이 12명(41.4%), 3년~5년이 4명(13.8%), 6~7년이 8명(27.6%), 8년 이상이 5명(17.2%)이었고 교사의 전공별로는 유아교육학(16명)과 아동학(11명)이 주를 이루었다.

<표 1> 연구 대상 교사의 일반적 배경 (N = 29)

구분	수 (%)
연령	25세 미만 9(31.0)
	25~29세 12(41.4)
	30~34세 6(20.7)
	35세 이상 2(6.9)
학력	고졸 1(3.4)
	전문대졸 11(37.9)
	대졸 12(41.4)
경력	대학원졸 5(17.2)
	3년미만 12(41.4)
	3~5년 4(13.8)
	6~7년 8(27.6)
전공	8년 이상 5(17.2)
	양성과정 1(3.4)
	유아교육학 16(55.2)
	아동(복지, 보육)학 11(37.9)
결혼 여부	가정관리학 1(3.4)
	미혼 23(79.3)
	기혼 6(20.7)
담당 아동 연령	1~2세(영아) 16(55.2)
	3~5세(유아) 13(44.8)
소속 보육시설	국공립 5(23.8)
	법인 5(23.8)
	민간 6(28.7)
	직장 5(23.8)

이루었다. 82.7%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55.2%가 영아반 교사, 44.8%가 유아반 교사였다.

연구 대상 교사들이 근무하는 보육시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시설 5개(23.8%), 법인시설 5개(23.8%), 민간시설 6개(28.7%), 직장보육시설 5개(23.8%)이며 시설의 규모 면에서는 4~6개의 학급으로 구성된(9개) 30~60명의 원아(11개), 4~8명의 교사를 가진 시설(11개)이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보육교사 심층 면접 질문지

보육교사를 심층면접하기 위하여 Chang이 개발한 “유치원 교육과정, 놀이, 교사역할에 관한 신념 질문지(2001)”와 Cemore가 개발한 “극화놀이에 관한 개방형 질문지(2005)”를 기초로 개방형 질문을 포함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학계와 현장에 있는 보육전문가들에게 안면타당도를 구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보육교사 심층 면접 질문지의 내용은 자유놀이의 현황과 이에 따른 교사의 놀이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일반적 배경’,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현황’, ‘교사의 놀이 인식과 갈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면접자가 개방형으로 질문하면 답변하도록 하였다. ‘일반적 심층면접’이기 때문에 답변에 따라 보다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경우(probing)도 있었다. ‘일반적 배경’ 부분은 보육시설 유형, 규모, 보육교사의 연령, 교육수준 등 보육시설과 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현황’은 현재 응답자의 반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와 학습지도의 비중과 내용, 현재 응답자의 반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놀이에 대한 사전 계획과 실내 공간구성, 자유놀이의 내용, 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 등에 대한 8가지 질문을 하였다. ‘교사의 놀이 인식 및 갈등’에 관해서는 교사가 생각하는 놀이의 정의, 교사가 생각하는 보육과정에서의 이상적인 자유놀이 비중, 놀이나 학습에 관한 갈등 등에 대하여 9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2) 보육과정 현황표

실제 실시되고 있는 보육과정을 근거하여 자유놀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교사가 현재 지도하는 반에서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보육과정의 하루 일과를 교사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각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활동의 내용과 주제, 진행방식, 교재 사용 여부, 놀이와의 관련성, 아동의 의사반영 정도, 아동들의 선호도 등)은 일과표를 작성한 후 심층면접 시 질문을 통해 면접자가 따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런 활동들의 주체가 교사인지 영유아인지, 놀이중심 활동인지

〈표 2〉 자유놀이 운영에 따른 보육과정 유형

(N = 29)

유형\기준	전체 일과 중 자유놀이시간 비중	자유놀이 운영방식	전체 일과 중 학습지도시간 비중
놀이 중심형 (n = 5)	61.2%	오전과 오후 두 번의 실내, 실외 자유놀이만으로 보육과정이 구성됨	0%
혼합형 (n = 18)	37.6%	학습지도를 위한 대소집단 활동과 자유놀이를 혼합 병행	15.6%
학습 중심형 (n = 6)	13.7%	자유놀이는 등원, 점심식사, 낮잠 시간과 이어져 짧게 계획됨	35.2%

학습중심 활동인지를 평가할 근거를 수집하였다.

3. 연구절차

대전시 근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9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놀이’와 ‘학습지도’의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면접 문항을 보완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대전시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사들이 대답하기 쉽도록 일부 면접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육전문 교수와 보육시설 원장 등 전문가 2인에게 질문지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조사는 보육교사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연구자가 직장 근처로 찾아가서 비교적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29명의 보육 교사 모두 연구자가 직접 면접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고 1시간 30분으로 평균 50여분 정도였다. 교사들은 하루 일과 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동안 매우 성의있게 답변해 주었다. 모든 면접과정은 응답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하고 면접 직후 전사하여 총 전사본 A4용지 200쪽 정도의 분량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내용에 따라 빈도분석과 유형 분류, 주제가 분류 등 질적 분석의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보육과정 유형에 따른 교사의 놀이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현황

1) 자유놀이 운영에 따른 보육과정 유형화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9명의 교사를 심층면접하여 수집한 내용과 보육과정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표 2〉에 제시하는 3가지 기준이 도출되었다. 즉 교사들이 이끄는 반 각각의 보육과정에서 자유놀이 운영은 “전체 일과 중 자유놀이 시간의 비중”, “일과에서의 자유놀이 배

치 방식”과 “학습지도 시간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일과 중 자유놀이 시간의 비중”은 일주일간의 전체 보육시간에 대한 일주일간의 자유놀이 시간 비중을 계산하였다. 낮잠과 토요일 운영은 원마다 실시여부가 다르고 배정시간의 편차가 커 영유아의 활동시간 대비 자유놀이의 비중을 보는 것이 적합하리라는 판단에 의해 전체 보육시간에서 제외하였다. “일과에서의 자유놀이 배치 방식”은 자유놀이 시간이 일정한 교육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혹은 독립된 자유놀이 시간 없이 등하원 지도, 급간식, 낮잠 시간 등에 귀속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육과정에서 교사주도적 활동과 학습지도를 하는 시간의 비중을 “학습지도 시간 비중”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3가지 기준에 따라 29명의 교사가 운영하는 보육과정을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오전과 오후 두 번의 실내, 실외 자유놀이만으로 보육과정이 구성되고 교사 주도적 학습지도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놀이중심형 보육과정으로 명명하였고 5명의 교사가 운영하는 보육과정이 해당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학습지도를 위한 대소집단 활동과 자유놀이를 혼합 병행하여 혼합형 보육과정으로 명명하였고 18명의 교사가 운영하는 보육과정이 해당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자유놀이가 등원, 점심식사, 낮잠 시간과 이어져 짧게 실시되며 대부분의 시간이 시간표식 일과의 교사주도적인 학습지도로 이루어져 학습중심형 보육과정으로 명명하였고 6명의 보육교사가 운영하는 보육과정이 이에 속하였다.

아동의 연령과 설립유형에 따라 보육과정유형 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유놀이 비중이 영아반 11~73%, 유아반 9~55%로서 전반적으로 유아반의 자유놀이 비중이 영아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반에서 특별활동으로 할애되는 시간이 더 많고 같은 보육시설에서도 영아반보다는 유아반에서 학습지도나 대소집단활동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한편 설립유형별로는 2개의 직장보육시설과 1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놀이중심형 보육과정에 속하였고 5개의 학습중심형 보육과정 중 4개는 민간보육시설, 1개는 법인보육시설이 해당되었다.

2) 보육과정 유형별 자유놀이 현황

교사들의 보육과정 내 자유놀이 운영 현황을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보육과정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자유놀이를 할 때 지속시간,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 선택권, 보육실 내 흥미영역의 운영 방식, 교사의 놀이계획, 교사의 놀이개입 행동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놀이중심형 보육과정에서는 자유놀이 시간에 아동

이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하고 자유로이 영역을 돌아다니며 놀이하였다. 활동의 내용과 놀이감, 한 활동의 지속 시간은 전적으로 아동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되었으며 자유놀이 시 아동의 흥미와 상관없이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활동을 완성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교사는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고 적절한 개입 시기를 찾아 개입하여 놀이 상대자가 되어 주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한편, 교사가 자유놀이 시간 동안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경우는 없었고 흥미영역 간 통합적

<표 3> 영아반과 유아반/설립유형별로 본 보육과정 유형

(N = 29)

	놀이중심형 (놀이 비중 %)	혼합형 (놀이 비중 %)	학습중심형 (놀이 비중 %)	계	
영아반	국공립	1(65)	3(48,44,43)	-	4
	직장	2(73,67)	2(70a,31)	-	4
	법인	-	3(49,41,31)	1(18)	4
	민간	-	2(25,33)	2(14,11)	3
	계	3	10	3	16
유아반	국공립	-	3(40,27,23)	-	3
	직장	2(55,46)	2(29,21)	-	4
	법인	-	2(45,22)	-	2
	민간	-	1(55b)	3(18,12,9)	4
	계	2	8	3	13

주. 괄호 안은 일과에서의 놀이시간 비중(%)

^a일과에서의 자유놀이비중은 높으나 영아들에게 자유놀이 중 특정한 영역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고 자유놀이에 대한 계획 시 교사가 영역을 제한하여 계획하는 등의 내용에 의해 혼합형으로 분류되었다.

^b일과에서의 자유놀이 비중은 높으나 낮잠을 실시하지 않고 그 시간에 교사주도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어 혼합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4> 보육과정 유형 별 자유놀이 특성

보육과정유형 자유놀이요인	놀이중심형 (n = 5)	혼합형 (n = 18)	학습중심형 (n = 6)
자유놀이 1회 지속시간	실내: 평균 50분 실외: 평균 40분	30분~2시간	최대 30분
교사의 자유놀이 계획	- 영유아의 발달에 근거한 놀이활동을 흥미영역별로 계획(5). - 환경설정, 교구제공,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계획 수립(5).	충실한 계획(5명)/ 특정 영역에 한하여 계획 (8명)/ 계획 없음(3명).	- 체계적 놀이계획 하지 않음(5). - 부분적 교구 교체에 그치는 놀이 준비(5), 혹은 연간 같은 놀이 환경(1).
아동의 자유선택권	- 활동 내용, 놀이감, 놀이여부 아동이 선택(5). - 의무적인 활동 부담 주지 않음(5).	- 학습 진도를 맞추기 위해 개별적으로 자유놀이 시간 할애하는 경우 있음(5) - 특정 영역에서 결과물을 위한 의무적 활동 강요함(10).	- 학습 진도를 맞추기 위해 개별적으로 자유놀이 시간 할애하는 경우 빈번(6). - 특정 영역에서 결과물을 위한 의무적 활동 강요함(6).
자유놀이에서의 교사의 놀이개입	- 개별적 상호작용원칙에 의한 개입(5). - 아동의 놀이 동기를 따라가는 융통적 운영(5). - 고른 흥미영역에의 개입(5). - 교사가 놀이상황에만 몰두(5). - 적절한 중재 기술 사용(5). - 교사교육에 의한 놀이 지도 효능감 소유(5).	- 균형있는 영역별 교사 개입(3) - 특정 흥미영역에 치우친 교사 개입(11). - 소극적 놀이개입유형(10)에서 적극적 놀이개입 유형(5)까지 다양.	- 등하원, 식사지도, 개인 업무 등으로 놀이에 몰두하지 못함(6). - 아동의 제안에 반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놀이개입 경향(6).
흥미영역 운영방식	- 영역 간 통합적 놀이 연계 격려(5). - 놀이 시 공간적 영역구분 강요하지 않음(5).	- 흥미영역 구분 없음(3) - 공간적 영역 구분의 규칙 적용(15).	- 흥미영역 구분 없음(2) - 공간적 영역 구분의 규칙 적용(4).

인 놀이를 추구하여 아동에게 영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역 간 연계되는 놀이상황을 만들어 놀이가 확장되도록 유도하였다. 교사에게 보육실에서 아동의 자유놀이 모습을 자유롭게 서술하게 한 결과, 놀이중심형 보육과정에 속한 모든 교사는 활발한 통합놀이와 교사의 적절한 개입행동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아동의 놀이를 상세하고 길게 설명하였다.

둘째, 유형인 혼합형 보육과정에서 자유놀이 1회 지속시간은 30분에서 두 시간까지 다양하였다. 자유놀이 계획에 대해서는 충실히 계획한다고 답변 한 교사도 있었고(5명), 아예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으며(3명), 언어, 미술영역 등 특정 영역에 한해서만 계획하는 경우도 있었다(8명).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 선택권은 교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매우 제한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제한되기도 하였다. 혼합형 보육과정에서는 시설장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아동의 흥미 여하와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활동이 있거나 자유놀이 시간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학습지도의 과제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10명). 또한 경우에 따라 재롱잔치 등 원의 행사를 위한 연습이 시작되면 약 두 달 이상은 자유놀이 시간을 연습시간으로 할애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자유놀이 시간 중 다른 업무를 보지 않는 교사(9명)도 있는 반면 수업 준비나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교사(4명)도 있었다. 교사의 개입면에서는 모든 영역에 균형 있게 개입하려는 교사가 있는 반면 개인적 취향이나 교사의 손길이 많이 요구되는 영역 특성에 따라 특정한 영역에 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혼합형 보육과정에서는 1세반을 제외한 모든 반에서 영역의 아동수를 제한하거나 영역 간 분리된 놀이를 권장하는 등의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자유놀이 상황에 대한 교사들의 서술을 통해 자유놀이가 주로 교사가 준비한 특정 영역에서의 활동 수행이나 교사 개입 없이 진행되는 아동의 놀이활동으로 구성됨이 나타났다.

셋째, 학습중심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1회 지속시간은 가장 긴 경우가 30분이었다. 아동은 점심식사나 학습 수행의 시간을 줄일수록 자신의 자유놀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고 가능한 한 빨리 간식이나 점심식사, 학습을 끝마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놀이를 안정적으로 즐기지 못하거나 분절된 시간으로 인해 놀이가 연결되지 못하는 등 짧은 놀이 지속 시간 때문에 아동의 놀이행동의 질에 영향을 받고 있음이 교사에 의해 보고되었다. 자유놀이에 대한 교사의 놀이계획은 따로 없는 편이었고 학습과제를 끝내지 못한 아동은 자유놀이 시간을 할애하여 과제를 끝마쳐야 했고 활동의 결과물이 중요시되었다. 이렇게 지도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학습중심 보육과정을 선택한 학부모들이

활동의 결과물에 매우 관심이 많고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중심형 교사들은 아동을 대소집단으로 상대하는 교사주도적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유놀이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신념, 기술의 부족으로 개입을 피하거나 아동이 요구해 올 때만 반응해 주는 소극적인 개입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지도시간에 아동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많으므로 교사들은 자유놀이시간을 아동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한 보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집단에 속한 두 시설에는 흥미영역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학습형 보육과정 교사들의 자유놀이 상황에 관한 자유서술은 매우 짧고 대략적이었으며 교사의 놀이 개입 없이 진행되는 레고, 블록 놀이, 소꿉놀이, 신체놀이 등을 주로 언급하였다.

3) 보육과정 유형 결정의 주체

이러한 보육과정이 결정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체를 알아본 결과 모든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외부업체나 강사에 의한 특별활동의 종류, 교재 선정, 교구 수업의 내용과 과목 수, 놀이와 학습지도의 비중 등 보육과정의 기본 틀을 결정한다고 보고하였다. 시설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학부모의 영향이다. 혼합형과 학습중심형의 많은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학습지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시설장은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에 매우 민감하다고 답하였다. 둘째, 평가인증제도이다. 주로 혼합형 보육과정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참여하면서 보육과정을 평가인증의 지표에 따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유놀이의 비중을 늘리고 흥미영역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셋째, 시설장의 보육철학이다. 놀이를 보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함을 특히 놀이중심형 보육과정 시설장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학습지도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영유아에게 있어 놀이가 왜 적절하고,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하였다.

2. 보육교사의 놀이에 대한 인식

1) 보육과정 유형에 따른 교사의 놀이 인식

교사의 놀이와 학습지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해 보기 위하여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5가지 개방형 질문을 하고 그 응답을 앞서 구분한 보육과정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선택할 보육과정”을 묻은 질문($\chi^2 = 12.38, p < .05$)과 “보육과정에서 이상적인 자유놀이 비중”을 묻은 질문($\chi^2 = 13.37, p < .05$)에 대한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5〉 보육과정 유형별 교사의 놀이와 학습지도에 관한 인식

(N = 29)

개방형 질문/교사의 답변		놀이중심형 빈도(%) (n = 5)	혼합형 빈도(%) (n = 18)	학습중심형 빈도(%) (n = 6)	계	χ^2
아동의 배움에서 더 효과적인 것은?	놀이가 더 효과적이다.	5(17.2)	13(44.8)	5(17.2)	23(79.3)	2.45
	학습지도가 더 효과적이다.	-	3(10.3)	1(3.4)	4(13.8)	
	상황, 연령에 따라 다르다.	-	2(6.9)	-	2(6.9)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한 보육과정은?	놀이중심	5(17.2)	11(37.9)	2(6.9)	18(62.1)	5.17
	학습지도 중심	-	7(24.1)	4(13.8)	11(37.9)	
자신의 자녀를 위해 선택할 보육과정은?	놀이중심	5(17.2)	15(51.7)	1(3.4)	21(72.4)	12.38*
	학습지도 중심	-	1(3.4)	2(6.9)	3(10.3)	
	연령에 따라 다르다.	-	2(6.9)	3(10.3)	5(17.2)	
학부모가 선호하는 보육과정은?	놀이중심	-	2(6.9)	1(3.4)	3(10.3)	1.92
	학습지도 중심	4(13.8)	13(44.8)	5(17.2)	22(75.9)	
	연령에 따라 다르다.	1(3.4)	3(10.3)	-	4(13.8)	
보육과정에서의 이상적인 자유놀이 비중은?	90%이상	4(13.8)	7(24.1)	1(3.4)	12(41.4)	13.37*
	60~80%	1(3.4)	9(31.0)	1(3.4)	11(37.9)	
	40~50%	-	2(6.9)	3(10.3)	5(17.2)	
	20%	-	-	1(3.4)	1(3.4)	
계		5(17.2)	18(62.1)	6(20.7)	29(100)	

*p < .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가치관은 자신의 자녀에게 적용할 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현재, 혹은 미래를 예측해 보도록 하여 “자신의 자녀를 위해 선택할 보육과정”을 물은 질문에서 놀이중심형 교사 전원(5명)과 혼합형 보육과정의 교사 대부분(15명)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학습중심형 교사 6명 중 2명은 학습중심 보육과정을, 3명은 연령에 따라 영아기에는 놀이중심을 유아기에는 학습중심 보육과정을 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비율은 20%에서 100%까지 넓은 편차를 보였다. 79.3%의 교사들이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보육과정 유형별로 놀이중심형의 교사들은 90%이상을, 혼합형의 교사들은 60~80%를, 학습중심형의 교사들은 40~50%를 이상적인 자유놀이 비중으로 가장 많이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육과정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아동의 배움에 있어서 교사주도적인 학습지도와 놀이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9명 중 23명(79.3%)의 교사들이 놀이로 배우는 것이 아동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습중심형 보육과정의 교사 6명 중 5명도 놀이가 학습지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답함으로써 실제 보육실에서 자유놀이 반영이 적은 교사들도 아동은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

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놀이중심과 학습중심의 보육과정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놀이중심이라고 답한 교사가 29명 중 18명이었다. 놀이중심이 아동의 배움에 더 효과적이라고 답했던 23명의 수가 우리나라 상황을 대입하니 18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놀이중심형 교사의 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혼합형에서 4명, 학습중심형에서 3명이 아동의 배움에는 전반적으로 놀이가 더 효과적이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학습지도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인지 중심 가치관과 학벌 중시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아동에게는 놀이중심과 학습중심의 보육과정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학부모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은 결과 총 22명(75.9%)의 교사가 학부모는 학습지도 중심의 보육과정을 선호할 것이라고 답하였고 4명의 교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영아기에는 놀이중심을, 유아기에는 학습 중심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학부모의 학습지도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아반 교사 3명만이 학부모가 놀이중심을 선호할 것이라고 답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부모가 학습중심 보육과정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 밝혀진 바에 의

〈표 6〉 보육과정 유형에 따른 놀이, 학습지도 관련 교사 갈등 (N = 29)

유형	갈등 내용
놀이 중심형	· 초임교사 시절: 놀이중심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 · 현재: 놀이중심 교육에서 자신이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혼합형	· 교사 혼자 모든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점 · 학부모의 과도한 학습요구와 아동의 놀이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두 요인 대립 · 원장의 의견과 자신의 신념 대립
학습 중심형	· 학습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 · 자유놀이를 신경 써주지 못하는데 대한 미안함 · 원장이 결정한 보육과정인만큼 교사인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

하면 많은 유아반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학습지도 관련 요구를 받는다고 하였다. 놀이중심형 보육과정 교사 5명도 학부모는 학습중심 보육과정을 선호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그중 3명은 학부모들이 아직은 학습지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하고 놀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지만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혹은 실제 놀이의 교육적 효과를 경험하면서 놀이중심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지도 보다 쉽게 측정하기 어려운 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2) 놀이와 학습지도에 관한 교사의 갈등

교사들은 각각 놀이와 학습지도에 관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6〉에서 제시하였듯이 놀이중심형 보육과정의 교사들은 놀이에서의 교사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혼합형 보육과정과 학습중심형 보육과정의 교사들은 교사 혼자 모든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점과 학부모의 과도한 학습요구와 아동의 놀이욕구 사이에서의 갈등을 토로하였다. 혼합형과 학습중심 보육과정의 교사들(24명) 중에서 놀이개입이나 놀이 상호작용에서의 반성적 자기평가에 대한 언급을 한 교사는 혼합형 교사 1명뿐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전 시내 보육시설의 교사 29명을 심층 면접하여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교사의 놀이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와 학습지도의 비중, 자유놀이의 배치 방식에 따라 보육과정은 1) 교사주도적인 학습

지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자유놀이로만 이루어지는 놀이중심형 보육과정, 2) 학습지도를 위한 대소집단 활동과 자유놀이를 혼합하여 놀이와 학습지도가 병행되는 혼합형 보육과정, 3) 시간표식 일과의 운영으로 교사주도적 학습지도가 주를 이루고 자유놀이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학습중심형 보육과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총 29명의 교사 중 놀이중심형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는 2개의 직장보육시설과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5명뿐이었다. 이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현재 우리나라에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보육과정에 자유놀이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장과 교사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의 의지, 학부모들의 학습 요구에 대한 부모교육, 질 높은 놀이운영을 위한 꾸준한 교사교육,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의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3개 보육시설에 속한 18명(62.1%)의 교사가 혼합형 보육과정 유형에 속하였고, 5개 보육시설에 속한 6명(20.7%)의 교사가 학습중심형 유형에 속하였다. 학습중심형 보육시설 중 4개가 민간 보육시설로서 이는 주로 학부모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었는데 시설장이 이런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학부모 만족도와 유리한 원아모집의 조건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사립 교육기관은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치원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존속, 폐립 되고 있다는 점이 유치원간의 과열 경쟁을 초래하며 결국 오늘날과 같은 학원식 교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정화 외(2003)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둘째, 각 보육과정 유형에 따른 자유놀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육과정 유형에 따라 자유놀이 특성이 달랐다. 놀이중심형 보육과정의 자유놀이에서는 교사가 연령에 적합한 활동계획과 환경을 준비하고, 아동의 자유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하며, 질적인 놀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해 주고, 자유놀이 시간 동안 아동과의 상호작용에만 집중하면서 영역 간 통합적 놀이를 장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혼합형 보육과정의 자유놀이에서는 질적인 자유놀이를 운영하는 곳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곳까지 보육시설 간 많은 편차가 있었다. 학습지도의 비중, 교사의 자유놀이 집중도, 아동의 자유 선택권, 1회 자유놀이 지속 시간 등에서는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흥미영역 간 공간적 제한과 아동의 언어, 미술영역 참여 유도는 공통적으로 발견된 운영방식이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규제를 경험하는 곳이 되고 있으며(양옥수, 2002), 자유선택활동

이 메뉴판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고(나은숙, 2005), 교사에 의해 참여가 강요되고 인원수가 제한되는 영역운영(김상은, 1995)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보육현장에서 이러한 영역 간 구분된 운영 방식이 통념처럼 행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인한 정리의 부담, 바람직한 영역운영에 관한 개념과 교육의 부재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흥미영역의 개념과 통합적 적용에 대한 교사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영역 운영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습중심형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시간은 학습지도의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시간인 반면 교사에게는 비계획적인 준비, 소극적 교사개입이 이루어지는 방임적 시간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교육환경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환경이 제공될 수 없고, 또한 성인의 관심이나 지지가 없다면 학습과 발달을 위한 놀이의 가치는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Bredekamp(서민희, 안선희, 2001, 재인용)의 주장대로 놀이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유놀이 운영이라 하겠다. 또한 이 유형에서는 짧은 놀이지속 시간으로 인한 놀이의 질적 저하 현상과 학습진도 보충, 재롱잔치 연습을 위한 자유놀이 시간 반납도 발견되었다. 이는 보육과정의 운영에서 아동의 놀이에 우선권을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육과정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시설장의 결정권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유놀이 운영에 따른 보육과정 유형별 교사의 놀이인식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79.3%)은 아동의 배움에서 학습지도 보다 놀이가 아동의 발달에 더 적합하며 따라서 보육과정에서 놀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신념과 다른 선택을 하는 교사가 늘어났는데 이는 인지 중심 가치관과 학벌 중시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교사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72.4%의 교사가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택하겠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과정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났다. 대부분의 교사들(75.9%)은 학부모들이 학습중심 보육과정을 선호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보육현장에서 학부모의 학습지도 압박을 체험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 중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교사들이 부모에게 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하여 놀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놀이가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아는 교사들이 보육과정에 놀이를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학부모에게 알

릴 필요가 있다는 Rothlein과 Brett(1987)의 제언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교사들이 학부모나 시설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놀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79.3%의 교사들은 보육과정에서의 놀이 반영 비중이 6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놀이중심형 보육과정의 교사들은 90%이상, 혼합형 보육과정의 교사들은 60~80%를, 학습중심형 보육과정의 교사들은 40~50%를 이상적인 놀이 비중으로 가장 많이 제시함으로써 보육과정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실제의 자유놀이 현황은 매우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므로 교사들은 보육과정 현장에서 놀이와 학습지도에 관해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놀이중심형 보육과정 교사들은 놀이에서의 교사 역할, 효능감을 고민하였고 혼합형과 학습중심형 보육과정 교사들은 혼자서 많은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과 학부모의 과도한 학습요구, 아동의 놀이 욕구 충돌, 원장과의 다른 신념에서 오는 갈등을 토로하였다. 특히 과도한 학습지도로 인한 갈등은 학습지도형 보육과정의 교사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주입식 학교 교육과정이 취학 전 연령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우리나라 교육의 단면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장의 교사들이 놀이와 교육과정을 연결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인 학교 교육과정이 주는 압력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상급학교 교육과정에서 잃어버린 놀이를 회복시키고 교육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보육교사는 놀이를 통해 학습할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교육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부모와 행정가에게 놀이와 학습/발달, 놀이와 유아교육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엄정애(2001)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기존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였다는 점과 설문지가 아닌 심층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놀이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으나 보육과정에서의 놀이 반영 전반을 분석하지 못하고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로 국한한 점, 대전지역의 보육시설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는 교사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찰을 병행한 방법을 사용하고 자유놀이 뿐만 아니라 보육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분석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상은(1995). 유치원의 자유선택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양(1989). 유치원 교사, 부모, 유아의 놀이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1982). 유치원의 자유놀이 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정(1998).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놀이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은숙(2002). 유아교육과정의 재 개념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유놀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아(2003). 유아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태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8).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서민희, 안선희(2001).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5(1), 71-77.

서현아, 권말순(2007). 유치원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나타난 교사의 놀이개입 유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227-248.

송혜린(2004).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및 교사의 놀이참여와 아동의 놀이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유림, 김선영, 김숙이, 나종혜, 문혁준, 박진옥 외(2007). **놀이지도**. 서울: 창지사

신은수, 김명순, 신동주, 이종희, 최석란(2002). **놀이와 유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신은희(1991). 놀이에 대한 교사의 사고체계와 실제 행동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옥승(2002).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유치원의 자유놀이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연구**, 20(1), 53-73.

엄정애(2001). 놀이와 유아교육: 그 조화의 방향에 대한 탐

색. **열린유아교육연구**, 5(3), 1-25.

엄정애(2004). 놀이와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과 현황. **유아교육연구**, 24(1), 145-164.

이기숙(2001).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2000). **유아교사론**. 서울: 양서원.

이정화, 정선아, 이명조(2003).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 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85-118.

이정환(1993). **유아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서울: 교문사.

통계청(2005).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황혜현(2000). 유치원 자유활동 시간에 교사의 흥미영역별 개입빈도 및 유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emore, J. J.(2005). *What is make-believe play? Preschool teachers' perspecti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Ames, USA.

Chang, P.(2001). *Taiwanese kindergartner's play and artistic representations: Differences between two classrooms and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teachers' beliefs about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tate College, USA.

Cheng, S.(2000). *A Teacher's understandings and practices regarding children's play in a Taiwanese kindergart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USA.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2nd ed.). New York: Longman.

Rothlein, L., & Brett, A.(1987), "Children's,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f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 47-53.

접 수 일 : 2010년 4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일